

# ‘People Business’ 건설산업… 장인 양성 소홀로 고속련 기술 증발

- 정책 대상의 선택과 집중, 공식 교육훈련 시스템 강화, 창업 지원제도 마련 등 필요 -

김민형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mhkim@cerik.re.kr

## 건설업, 고속련 장인 역할이 증시되는 대표적 산업

건설산업은 ‘People Business’라고 불릴 정도로 전통적으로 인재가 가지는 중요성이 높은 산업이다. 특히, 건설공사의 품질은 현장 근로자들의 숙련도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건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고속련 장인은 갈수록 희소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향후에도 지금과 같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충원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겨우 명맥이 이어지던 고속련 현장 기술(skill)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청년층 인력의 진입 감소와 국내

현장 인력의 고령화 심화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외국인 기능인력 수입의 근본 취지와 달리 현장, 특히 도심과 가까운 건축 현장의 경우 외국인 인력이 90%를 넘는 곳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인력의 현장 진입 증가는 장차 내국인 인력의 세대간 기술 단절과 건설산업의 품질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고속련 건설 기술의 세대간 계승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중요한데, 이를 위

해서는 건설 분야 장인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건설 근로자, ‘어깨너머 교육’으로 기능 습득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체계적인 기능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한 후, 비공식적 과정인 현장 경험을 통해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는 전근대적 방식으로 기능을 습득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 건축, 토목, 플랜트 현장의 약 2,500여 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건설 근로자 중

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근로자가 81.5%나 되었고, 건설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자가 98.6%에 달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비공식적 방식에 의한 기능 습득 방식은 현장 근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전수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한계가 주어지며, 수요 증가로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고숙련 장인의 육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국제적인 평가는 높는데...

산업 경쟁력은 저변에 숙련 기술자가 얼마나 폭넓고 탄탄하게 포진해 있느냐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건설업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고숙련 근로자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에서 고숙련 근로자로 인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는 인력은 그 수가 매우 미미할 뿐 아니라 정책적 지원의 실효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먼저, 정부가 제도적으

로 인정한 고숙련 기술자 중 건설 분야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최고 숙련 기술자에게 부여하는 대한민국 명장의 경우, 건설 분야(건축/토목) 종사자의 비중은 2014년 말 현재 전체 명장 중 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1990년 이래 선정된 대한민국 명장은 모두 567명인데, 이 중에서 건설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명장은 총 11명뿐인 것이다. 2011년부터 선정되어 온 우수 숙련 기술자의 경우 그동안 171명이 선정되었으나, 이 중 건설 분야에서 선정된 인력은 5명으로 전체의 2.9%에 그쳐 명장 선정의 경우와 비슷하게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국제 기능올림픽에서는 건설 관련 분야가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메달 획득 개수로 알 수 있는데, 1990년대 이후 건설 관련 분야에서 획득한 메달 수는 총 58개로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획득한 전체 메달 260개의 22.3%를 차지하여 국제 기능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18회나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젊은 건설 장인들이 탁월한 기량을 갖추고 있음을 세계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특히, 목공 분야는 12번 출전하여 11개의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출전하면 거의 예외 없이 입상하는 최고 수준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 관련 직종의 기술 수준은 국제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주목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국제 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의 경우 훈장과 포상 등이 주어지나<sup>1)</sup> 실제 취업에 있어서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 수상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국제 기능올림픽 수상 경력이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1명에 그쳤고, 나머지 3인은 별다른 우대 조건 없이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 취업(1인은 계약직 형태)하였으며, 취업 후에도 자신의 숙련 기술을 활용할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국제 기능올림픽에 참가할 때까지는 기량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회 종료 이후에는 주변의 관심과 지원이 사라졌고 기

1) 현재 국제 기능올림픽에서 수상할 경우 금메달 수상자에게는 동탑산업훈장과 상금 6,720만원, 은메달은 철탑산업훈장과 상금 5,600만원, 동메달은 석탑산업훈장과 상금 3,920만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산업포장과 1,000만원이 주어지며,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병역 대체 복무(산업기능요원 편입), 4년제 대학 진학 시 장학금 지급, 기능연금 지급 등의 혜택이 부여됨.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성과(1990년대 이후)

(단위 : 명, %)

구분	전체	건설 분야	건설 분야 비중
금메달	135	33	24.4
은메달	64	11	17.2
동메달	61	14	23.0
소계	260	58	22.3

자료 :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량 제고를 위한 노력도 중단되고 마는 것이다.

**고속련 장인 육성 애로 요인  
사회 곳곳에 산재**

향후 고속련 장인의 양성을 위해 국제 기능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4명, 대한민국 명장 3명, 중요무형 문화재 대목장 기능 보유자 1명 등 총 8명의 건설 분야 고속련자를 대상으로 숙련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애로 요인에 대해 면담을 실시한 결과 시장경제적 측면, 기술 변화 측면, 그리고 교육훈련 시스템 측면 등 다양한 면에서 애로 요인이 지적되었다.

먼저, 시장경제적 측면으로는 최고의 품질보다는 가격을 더욱 중시하는 표준품셈 등의 제도와 현장 관행으로 숙련 기술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와 관행 속에서 숙련 기술을 활

용할 기회는 줄어들고, 고도의 기술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도 적어 숙련 유인 동기는 저해될 수밖에 없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숙련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생산성을 최우선시하는 현장 생산 방식을 들 수 있다. 대규모 건설 현장의 경우 고품질의 정밀한 시공보다는 웬만한 수준으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즉, 고도의 정밀한 손기술보다는 전동 공구에 의존하여 대량으로 빠르게 하는 시공을 선호함으로써 어렵게 익힌 정밀한 손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교육훈련 측면에서 숙련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체계적인 시스템 미흡과 교육과 현실의 미스매치(mis-matching) 현상을 들 수 있다. 특히, 교육과 현실의 미스매치 현상은 심각하여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더라도 현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현장 근로자를 위한 교육은 대부분 신규 인력을 위한 기초 교육에 머물러 있으며<sup>2)</sup>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다. 결국 건설 근로자의 기술 습득은 전통적으로 현장 작업을 통한 암묵지에 의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으며, 공공부문의 지원 시스템도 불비한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범건설업 차원의 지원 체제 마련해야**

그렇다면 건설 분야 장인 양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교육훈련 체계의 정비 및 강화가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 어깨너머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술 습득 방식에서 벗어나 건설산업 분야에서의 건설

2) 거점 직업훈련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훈련 과정의 96.0%가 신규 입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과정에 편중돼 있음.



...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인재의 중요성이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고속련 장인은 갈수록 줄고 있다. 앞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고속련 현장 기술은 그 명맥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

근로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호주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교육고등기관(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을 통해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보다 공격적인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건설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각 직종별로 건설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도 절실하다.

두 번째로, 미래 비전을 위한 경력 경로 개발 및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는 건설 현장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일을 하여도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체제였다.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의 근무가 경력화되지 않으므로 결국 임금에도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건설 현장 근로자들도 전문 분야, 자격, 경력 등을 관리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함으로써 경력 경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호주나 독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단순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가 아닌 독립 사업가로서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인력 양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혜 대상을 분명히 하고,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을 시행하여 청년층 인력들이 건설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건설근로자 긴급 육성 지원 대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 차원에서 인력양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ERIK